

양돈산업은 양돈인들의 손으로



박 종 면
(본회 고문)

양돈인들이 스스로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서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기하고 산업 발전과 협조를 위해서 출범한 대한양돈협회가 십 수년이 지나는 동안 회원들의 지지와 동참의 결과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생산자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몇가지 부탁 말씀을 함께 드릴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때도, 또는 경기 호황하에서도, 언제 어느때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지내왔던 전국 25만 양돈인들은, 이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현금에 이르러, 우리들의 의사를 한곳에 집결시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양돈협회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더라도, 우량종돈 개량사업, 기술교환,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홍보, 배합사료 단가조절 및 품질검정, 육질개선, 사양관리를 위한 상호정보교환, 수출산업 추진, 도축장 및 경매시장의 개선 등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산적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며, 결집된 의사로서의 단체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는 사명감으로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뭉치면 머지않은 세월안에 우리들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즉, 생산과 소비의 균형있는 발전과 자율적 수급 조절로 국가 정책이 순응함과 동시에 안정된 양돈경기가 이루어져 양돈산업이 국민건강 증진에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바, 우리 양돈협회는 생산자끼리 모여 상호 협조로서 각자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라 할진대 우리들의 일을 타인에게 맡기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수 년전에 양돈협회 중앙회 회장직을 외부인사로

“ 우리는 양돈산업에 산적돼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라는
인일한 생각을 버리고, 사명감을 갖고 협회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당국에서 명령한 바 있어 약한 양돈인들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인 사실을 재론할 필요는 없으나, 본업이 아닌 사람이 그 직책의 막중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 양돈인들의 의사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을 스스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양돈협회 회장직은 단연코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집결된 의사만이 양돈산업이 발전되고 양돈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현재 양돈협회 임직원의 활동을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초 소생은 양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최신정보 또는, 어떤 기술적인 면을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 회원들께서 단결과 총화로써, 또는 사랑과 정성으로 본회를 육성하면 양돈산업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료 원료수입에 대한 관세와 배합사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게 되면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국제시장에 대응하여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도 염가로 공급하게 됨에 따라 생산자측과 소비자, 넓게 봐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향상되므로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시 축협 중앙회나 대기업 중에서 계열화 사업이라 하여 이론상으로는 농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농민들에게 몇두씩 분량하여 키우게 하고, 상당의 근로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초월하거나 규제대상 두수를 초과 사육할 수 있는 편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참다운 국가관과 민족애를 생각할 때 진정 농민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업이 정신으로서 보다는 애민의 정신으로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축협중앙회는 축산인 단체인 고로 축산인이 생산한 축산물에 손실이 없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모든 축산인들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는 참다운 축산인 조합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돈인 역시 축산인으로서 같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단결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